

속사미인곡 (이진유)

가을이 점점 깊고 객회(客懷)는 쓸쓸한데 / 송옥이 쓴 가을 노래 초나라 소리로 높이 읊고

계절(깊어가는 가을)+나그네의 회포 — 유배객의 적정한 정서를 계절감으로 부각(32번 ①).

'송옥의 가을 노래' 고사 인용 — 사대부 교양(용사)이 유배지에서도 유지됨.

무릎 겨우 움직이는 좁은 집 지으려 할새 … 격식은 못 갖췄으나 거처는 정갈하다 / 몸 굽히고 펴기 이제야 편안하다

섬 백성의 도움으로 지은 좁은 거처 — 불편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는 화자(32번 ②).

'감군은(感君恩) 세 글자를 벽 위에 크게 쓰고' — 유배 중에도 임금 향한 충의를 거처에 새김: 연군 가사의 표지.

종일 문을 닫고 주자의 경서를 펼쳐 보니 / 의리 무궁함을 늙어서야 깨닫도다

유배지에서의 독서(주자 경서) — 학문을 닦는 사대부 정체성의 유지(34번 ① 근거).

34번 <보기> 프레임: '유배형은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' → 화자의 독서·연군은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신적 고투로 읽을 것.

하사받은 책 천 권이 고각(高閣)에 묵혔으니 / 종이 벌레 다 먹은들 그 뉘라서 벌에 쪼며

임금이 하사한 책이 고향 집에 묵혀 있음을 염려 — 임금의 은혜와 학자적 정체성이 결합된 근심.

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/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굴 다시 의지할꼬 … 내 신세 홀몸인 줄 임이 모르실까

낯선 섬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임(임금)뿐 — 임과 함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연군의 직접 토로(34번 ②).

'사미인곡' 계보의 관습: 임=임금, 화자=버림받은 여인의 목소리.

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오나 /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일세

'망령됨도 내 죄' —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는 임 위한 정성이었다는 자기 성찰.

34번 ④ 함정: 화자는 죄를 '밝히'지만 그 동기를 '부끄러워'하는 게 아니라 정성이었다고 항변 — 선지의 미세한 왜곡을 잡아낼 것.

연잎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 지어 / 상자 속에 두었신들 놀 위하여 단장할꼬

꿈속에서 임에게 전할 옷을 짓는 상상 — 단장할 대상(임)이 없는 현실의 외로움(33번 ①② 지점).

임금이 불러 문답하던 가태부가 이 같을까 … 우리 임 옥음(玉音)은 귓가에 완연하고 / 어느 날 이내 꿈을 생시로 삼을런가

꿈에서 임금과 문답하던 가태부(가의)에 자신을 견줄 — 꿈속 만남의 생생함('옥음이 귓가에 완연')과 생시로 삼고 싶은 애절함(33번 ④⑤).

'가태부' 고사(한나라 가의의 유배) — 유배 사대부의 전형적 자기 투영.

광주리 든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고 … 두어라 왕께서 고쳐 헤아리길 날마다 바라노라

'가을 부채(버려진 신세)에 자신을 빗대면서도, 왕의 새로운 판단(재서용)을 날마다 소망하는 결구(34번 ③⑤).

유배가사 3대 정서 세트로 정리: ①연군(임 그리움) ②자기 성찰(죄와 정성) ③재기 소망(고쳐 헤아리길). 선지들은 이 셋의 경계를 흐려서 출제됨.

작품 정리

갈래	유배 가사(연군 가사)
성격	고백적, 애상적, 의지적
작가	이진유(조선 후기 문신, 추자도 유배)
시점/화자	유배지 섬에서 임금을 그리는 '나'(여성 화자의 목소리 차용)
주제	유배지에서의 고독과 연군의 정, 사대부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신적 고투와 재서용의 소망

특징

- 정철 「사미인곡」 계보를 잇는 '속(續)사미인곡' — 임=임금의 연군 관습
- 고사 인용(송옥·가태부·장문부)으로 사대부적 교양과 자기 인식을 드러냄
- 꿈과 생시의 대비([A])로 임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과 좌절을 형상화
- 가을 부채·광주리 등 사물에 처지를 빗대는 우의적 표현

구성

- 서사: 깊어가는 가을, 섬에서의 거처 마련과 정갈한 생활
- 본사 1: 독서와 연군 — 사대부 정체성의 유지

- 본사 2: 죄의 성찰과 임 위한 정성의 항변
- 본사 3: 꿈속 임과의 만남과 깨어난 뒤의 애절함
- 결사: 왕이 고쳐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소망

본 지문의 저작권은 출제 기관에 있습니다. 해설·정리는 에이슬 제작 · 영어 상세분석지 moonvit-prism.com/downloads